
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

2020. 7. 2.

금 융 위 원 회

순 서

I.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	1
II.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현황	2
III.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성과	4
IV. 향후계획	8

I.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

□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*, 금융시장 불안심리**가 확대

* 취업자수 증감 △47.6만명, 소비자심리지수 71, 수출증감율 △24.3% (4월 기준)

** '20.3.19일 코스피 지수 1,457pt('20년 중 최저치) 전년말 대비 △33.7% 하락

□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+@ 규모의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을 마련하여 이행중

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한 100조원+@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* 마련

* 3.19일 1차 비상경제회의, 3.24일 2차 비상경제회의

② 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·고용안정을 위해 규모를 135조원으로 확대하고, 기간산업안정기금(40조원) 조성을 추진*

* 4.22일 5차 비상경제회의

□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*도 마련·추진중

*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(5조원),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프로그램 (2조원+@) 도입 방안 발표(6.19일)

※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총 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



II.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현황

- ◆ 소상공인·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(68조원)의 2/3 수준(44조원)을 집행하는 등 긴급한 자금으로 해소를 지원
- ◆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(73.5조원)은 예상보다 빠른 시장안정으로 집행규모는 크지 않으나, 시장안정판 기능 수행중

1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(68조원)

- ① [소상공인]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었던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

※ 38.9조원 중 27.1조원 공급 ⇨ 집행률 70%

- ① [1차] 금융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초저금리·이차보전대출 등을 지원(13.4조원)

* ①기은 초저금리 대출(5.25일 마감)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(5.6일 마감)은 소진
②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지원 중(56% 이행) ③소진공 이관분은 추가신청
수요 축소로(6월 3주차 일평균 56억원 수준) 사실상 마무리 단계

- ② [2차] 시중은행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중(0.4조원)이며, 소상공인 매출회복 등으로 신청속도는 둔화*

* 실행금액 : [6.4.~10.] 1,113.7억원 [6.11.~17.] 881.2억원 [6.18.~24.] 575억원

- ③ [보증] 특례·전액보증은 당초 계획(10.5조)을 초과하여 공급(13.3조원)

- ② [중소·중견] 중소·중견기업 자금으로 해소를 위한 대출·보증한도 증액, 이자·보증료감면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

※ 29.1조원 중 16.7조원 공급 ⇨ 집행률 : 57%

<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 >



2.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(73.5조원)

□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

① [주식·채권시장 안정] 증권시장안정펀드,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안정판(backstop)으로서 버팀목 역할 수행중

- 다만, 조성방안 발표 후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됨에 따라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

* 증권시장안정펀드 : 총 10.7조원 규모 중 1.2조원 조성

채권시장안정펀드 : 총 20조원 규모 중 3조원 조성

② [회사채·CP 매입 지원] P-CBO, 산은·기은 CP 차환 지원 등은 차질없이 집행중이며, 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는 3차 추경 통과 즉시 본격가동 예정

* 코로나 피해 P-CBO 5월 5,040억원, 6월 6,950억원 발행

CP·전단채 차환 지원 1.2조원, 회사채 차환 지원 0.2조원 등

③ [증권사 유동성 지원] 3월 당시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5.6조원을 지원하여 시장심리 안정에 기여

3. 기간산업안정기금(40조원)

□ 기금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,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 완료(4.29 국회 통과) 후 기금운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무리*

* 기금운용심의회 구성(5.28) 및 자금지원 세부조건 논의 등

○ 7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금의 추가 지원업종을 확정하고,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자금집행을 준비

<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행상황 >



IV.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지원성과

1. 선제적 금융지원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

- 전방위적인 실물지원*과 신속한 보건방역의 시너지 효과로,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

*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, 긴급재난지원금,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, 한은의 금리인하·통화스왑 노력 등

-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투자심리 개선,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※ 한국은행 분석결과(금융안정보고서)

-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으로 안정적인 신용공급이 지속된 상황이 정책 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*

* 정책효과 추정치 : 은행(BIS +0.7%p), 보험(RBC +128.8%p), 증권(NCR +206.6%p) 등

-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로 '20년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

※ 국제기구 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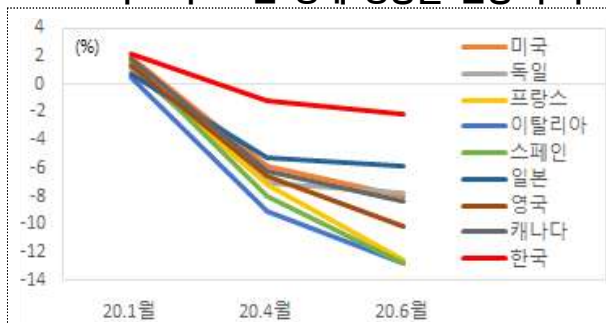
- ① (IMF)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-2.1%로 제시(1월 전망치 대비 $\Delta 4.3\text{p}$)

* 선진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치, 성장률 조정폭은 가장 낮은 수준
선진국 중 유일하게 '21년 말 코로나19 이전 수준 GDP 회복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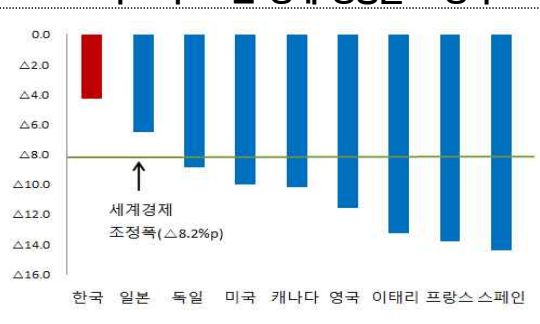
- ② (OECD)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-1.2%로 제시(3월 전망치 대비 $\Delta 3.2\text{p}$)

*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성장률 조정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(Notable Outlier)로 평가

<IMF 주요국 '20년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>



<IMF 주요국 '20년 경제 성장률 조정폭>



2. 신속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이 안정

- ① 과거 '08년 금융위기 대응 등의 경험*을 활용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, 증권시장안정펀드, P-CBO 등을 신속하게 가동

* ① **채권시장안정펀드** : '08년 운영, 출자금액 전액 상환 ② **증권시장안정펀드** : '08년 운영, 총 이익금 0.3조원 ③ **P-CBO** : '13년 시장안정 P-CBO로 확대개편, 7.1조원 발행 지원

- 도입방안 발표 후 2주 이내에 대부분의 프로그램 출범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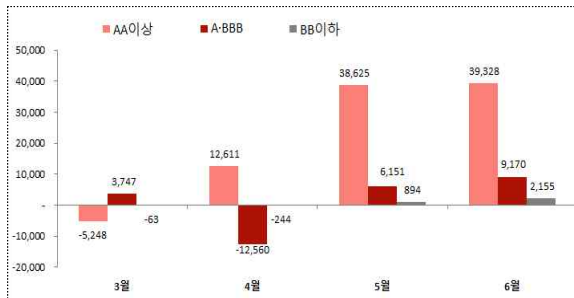
* 도입방향 발표(3.19일) → 세부방안 확정(3.24일)
→ 프로그램 출범(증권펀드 3.26일, 채안펀드 4.1일, P-CBO 4.1일)

- ② 시장안정 조치가 본격 가동된 4월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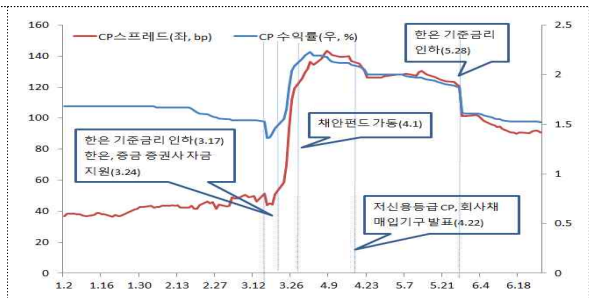
- ① 채권시장은 4월 이후 시장불안심리가 완화*되어 안정세

* ① 4월 중순부터 우량물 회사채 순발행 증가, 5월 이후 비우량물 회사채 순발행 전환
② CP 금리(A1 91일물)는 4월부터 하락하여 안정적 흐름 CP 스프레드(CP A1-통안채 91일물)도 축소

< 회사채 순발행 현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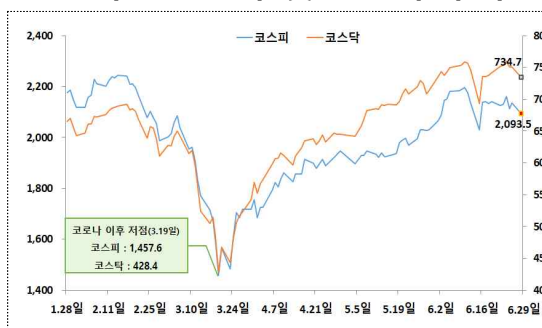
< CP 금리·스프레드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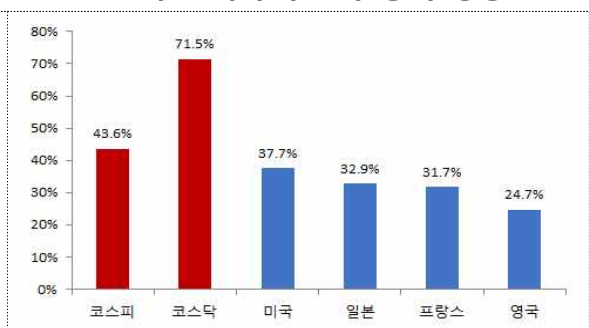
- ② 증권시장은 빠르게 회복*하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

※ 코스피는 2월말 수준(2079p/2.24일)을 회복하였고, 코스닥은 6.24일 연중 최고치(759p)를 기록

< 최근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>



< '20년 저점 대비 주요국 증시 상승률 >



3. 기업대출은 적극적인 공급에 힘입어 역대 최대수준

① '20년중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증가

- 5월까지 총 76.2조원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3~4월에 집중적으로 증가*

* '20년 3~4월 기업대출 증가액(46.6조원) > '19년 연간 증가액(44.9조원)
4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27.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

②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보통·취약 신용등급의 금융 접근 애로문제를 완화

①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*은 71%가 보통·취약 신용등급에 공급

* 수은, 기은, 산은 중소·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

②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*을 통한 코로나 지원도 보통·취약 신용등급 비중 이상으로 적극 지원(65% '19년말→71% '20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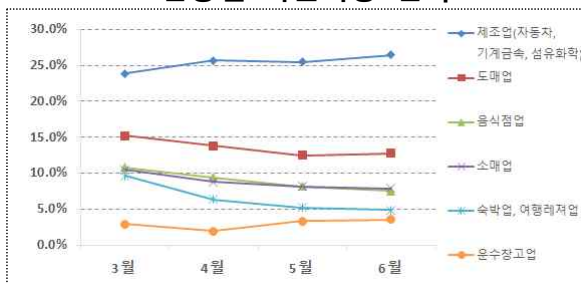
* 은행권 전체 코로나19 신규대출 중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프로그램 및 무등급 제외

③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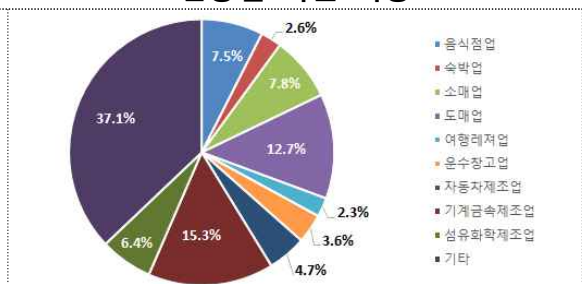
- 초기에는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위주*로 지급, 최근에는 수출부진 등 영향을 받는 중소·중견기업**에 적극 지원중

* 소매업, 음식점업 ** 자동차, 기계금속, 섬유화학 제조업 등

<업종별 지원비중 변화>



<업종별 지원 비중>



④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2차 방어선으로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

※ Financial Times(5.29일)에서는 美 연준의 Facility들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, 시장 안전장치(backstop)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

4. 관련 기관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

- ① 다양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주체별*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추진

* (소상공인) → 기은, 신보, (중소·중견기업) → 산은, 수은, 신보

※ (미국, EU 등)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위주 지원

※ (한국)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, 중앙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

- ① 정부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정책공백을 해소하는 역할* 수행

* ①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매입기구 설립 前 산은이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우선 매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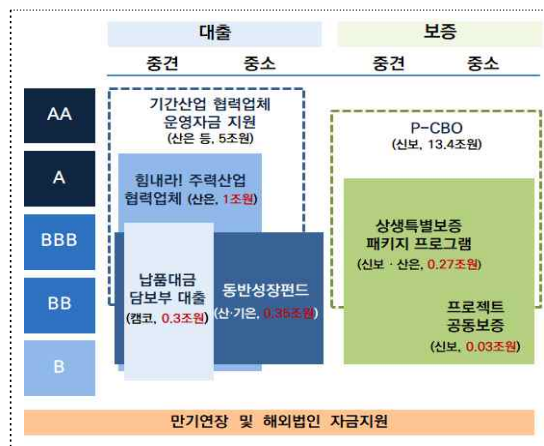
②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前 항공업 등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은·수은이 先 지원

- ② 위기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관간 협력모델 도입

<주요 협력모델 사례>

구분	협업내용
소상공인 지원	재정 + 시중은행 + 기은 + 소진공
저신용CP 매입기구	재정 + 한은 + 산은
기간산업 안정기금	국가보증채권 + 산은
車 부품 협력업체	완성차업체 + 산은 + 기은 + 신보 + 캠프

<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>



- ② 코로나19 지원 정책집행 창구로서 민간 금융회사들도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

- 全 국민을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*

* 5.11~23일 2주만에 총 2,010만 가구(92.6%)에게 12.6조원 신청·지급 완료

※ Bloomberg(5.21일) 등 주요 외신도 한국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금융, 행정 인프라를 높게 평가

IV 향후계획

□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(매주)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집행상황 지속 점검(계속)

□ 신규 프로그램 조성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

○ 일부 취약업종(자동차, 해운 등), 저신용등급 기업 등 금융접근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여력 보강

〈 취약부문 지원 프로그램 〉

①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매입기구 설립(10조원) : 추경통과 이후

* A등급과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

②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(최대 5조원) : 7월 중

* 기금 지원대상 업종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
③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업체 지원 프로그램(2조원+@) : 7월부터

* 자동차부품 산업 중소·중견기업(중견기업 및 중·저신용도 기업 집중)

④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(최대 2조원) : 추경통과 이후

*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

○ 국회 통과된 추경안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신속 실행

- 추경안 통과 전에도 다양한 수단*을 활용해 정책공백 최소화

* 산은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우선 매입 및 캠퍼채 우선 발행을 통한 기업자산 매입 추진 등

□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적 지원 조치(9월 限)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

○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「만기연장 및 이차상환 유예」 운영기간(~9월) 연장여부 및 적용범위 등 검토

○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 중 적용기한이 9월까지인 조치*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속도 등 검토

* 은행권 LCR 규제완화,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

참고1

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 주요 실적(6.26일 기준)

① 소상공인·중소 지원 프로그램	금액	실적
①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* 기은 초저금리, 시중은행 이차보전, 소진공 경영안정자금	16.4조	13.4조
②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	10.0조	0.4조
③ 중소기업·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	10.5조	13.3조
④ 개인연체채권 매입	2.0조	준비중
소 계	38.9조	27.1조

② 중소·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	금액	실적
①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	21.2조	12.8조
②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	7.9조	3.9조
소 계	29.1조	16.7조

③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	금액	실적
① 한은·중금 증권사 유동성 지원	5.0조	5.8조
② 회사채·CP·전단채 차환·인수 지원 *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, 산·기은 CP·전단채 차환지원	6.1조	1.4조
③ 코로나 피해 P-CBO	11.7조	1.2조
④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	20.0조	3.0조
⑤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	10.7조	1.2조
⑥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매입기구 설립	20.0조	준비중
소 계	73.5조	12.6조

전체합계 : 135조+@[6.4조원] 중 **56.4조원(41.1%) 집행**

- **(총괄실적)**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대출*·만기연장·원금상환유예 등 총 69.2조원(67.9만건) 지원

*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(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, 위탁보증 대출 등) 포함

- 「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」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공급* 및 대출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 중

* 기은 초저금리 대출(7.8조),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(3.5조), 소상공인 2차 지원(10조)

- 증권시장 안정펀드*, 채권시장안정펀드조성**에 적극 참여

* 18개 금융회사, 증권 유관기관 ** 84개 금융회사

<은행권 코로나19 지원 현황>

구분	시중은행		제2금융권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신규대출	54.7만건	30.2조원	463건	469억원
대출만기연장*	13.2만건	39조원	2.2만건	0.8조원
합계	67.9만건	69.2조원	2.3만건	0.8조원

* 원금상환유예 포함

- **(기타 사회공헌 활동)**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

- 각 은행들의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*로 제공

* 총 674객실 / 농협(230개), 우리(102개), 기업(179개), 대구(75개), 부산(88개)

- 취약계층 마스크 제공,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시행

구분	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
취약계층 지원	- 성금기탁(60억원), 마스크·손세정제 지원(40억원),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
소비진작	- 온누리·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및 화훼농가 지원(30억원)
기타	- 인근 식당 위생·방역 지원, 대구·경북지역 ATM 수수료 면제